亞문화전당, 시민의 힘으로

하 루브르 분관 유치한 랑스

주민 참여로 일궈낸 3만 소도시의 '아름다운 기적'

80여개 기업·단체·2천여명 제 돈 써가며 유치 노력

랑스=정상필 EU특파원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북쪽으로 200 여㎞ 떨어진 지방도시 랑스(Lens)의 시민들은 2012년이 어서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으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로축구 1부리그 팀 외에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이 지역에 해마다 수십만명이 찾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자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루브르 랑스(Louvre-Lens)'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해 탄생했고,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문화시설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를 바꾼 사례는 유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랑스 시민들은 루브르의 개관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랑스의 루브르 분관은 도심을 벗어난 외곽의 초원 20ha에 들어선다. 건물의 연면적은 2만8천㎡에, 전시면적만도 6천㎡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미술관이다. 950㎡ 규모의 오디토리움, 800㎡ 규모의 자료실, 320㎡ 규모의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어 종합문화시설로도 손색이 없다. 랑스 루브르 측은 첫해 70만명을 비롯, 매년 5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에 참가한 랑스의 인구는 3만여명이고, 인근 도시를 모두 합해야 32만명에 불과하다. 건물은 국제공모를 거쳐 당선된 일본인 건축가 니시자와 류에와 세지마 가즈요가 맡는다.

앙리 루와레트(왼쪽) 루브르 박물관장이 랑스에 들어설 루브르 분관 모형도를 보며 노르빠드깔레 의회 다니엘 페르슈롱 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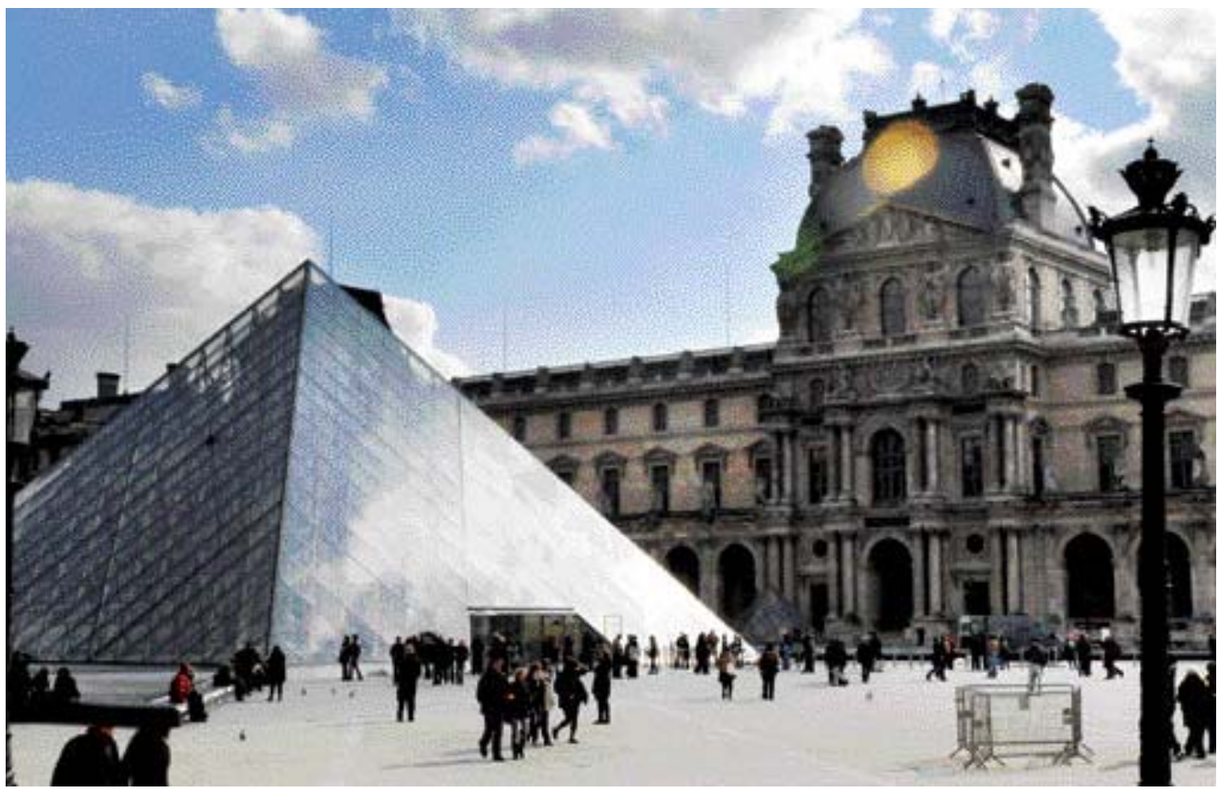
프랑스 문화부가 루브르 분관을 계획하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은 것은 2003년. 랑스는 이듬해인 2004년 말 프랑스의 다른 지방도시 5곳을 물리치고 루브르 분관 유치 도시로 결정됐다. 랑스 시민들은 유치 결정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랑스에 축구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모여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급한 지방 신문들은 스페인 북부 빌바오를 세계에 알린 '구겐하임 효과'를 들먹이기도 했다. 철강공업으로 번성하던 도시가 내리막을 맛본 뒤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 개관으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빌바오를 랑스의 롤 모델로 삼은 것이다. 랑스는 20세기 중반까지 탄광촌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1960년대부터 빛을 잃었다는 점에서 빌바오와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긴 하다. 루브르 분관이 들어설 부지도 폐광이 있던 자리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효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랑스가 루브르 분관 유치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10년을 맞은 빌바오는 그동안 15억7천만 유로(약 2조7천700억원)의 경제이익과 4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어냈고 3년여 전부터는 연간 방문객 100만 시대를 열었다. 지방정부의 투자액은 6년만에 회수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 개관 이후 지하철을 개선하고, 트램(전동차)을 깔았으며, 새 공항을 건설했다. 도시 내의 호텔 수는 10년 전에 비해 배로 늘었다. 스페인 문화계를 비롯한 일부가 개관을 반대했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뚝심이 결국 빛을 발했다.

랑스의 도시살리기 의지는 유치 신청 과정에서부터 두드러졌다. 랑스의 상위 자치단체인 노르빠드깔레(Nord-Pas-De-Calais)를 비롯한 랑스시, 인근 자치단체들이 똘똘 뭉쳐 전체 예산 1억5천만 유로(약 2천600억원)의 80%를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유럽 연합의 지역발전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시민들로 이뤄진 후원협회는 유치 과정에서 1천500명의 자발적 유료 회원을 모아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들은 루브르 본관이나 정부와 협의과정에도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했다. 현재 연회비를 납부하는 2천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80여개 단체 및 회사가 가입돼 있다.

랑스에 루브르 분관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이 일대 지자체들이 지역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랑스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결성한 민·관 협의체 유라랑스(Euralens)는 대규모 폐광촌이 있는 랑스 외곽까지 전동차 개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제2 부흥기를 예고하고 있다. 유라랑스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노르빠드깔레 의회 다니엘 페르슈롱(Daniel Percheron) 의장은 "인근 대도시 릴(Lille)이 고속철도 TGV 개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처럼 (랑스 인근 도시) 50만명의 주민들은 세계 최고의 루브르 분관 개관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camus@kwangju.co.kr



프랑스 북부 도시 랑스(Lens)에 오는 2012년 분관을 개관할 예정인 루브르 박물관 본관 전경. 랑스 주민들은 루브르 분관 유치를 시민운동으로 펼친 데 이어 개관을 앞둔 루브르 미술관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문화수도 생산 유발 효과 8조7천억

광주지역서만 6만7천명 고용창출
규모·파급 효과 세계적 국책사업

프랑스 랑스, 스페인 빌바오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거나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대형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될 광주와 문화수도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해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와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2007년 4월 (사)경영정보연구원의 조사 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과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방문객들과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직간접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정보연구소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효과로 광주 지역 생산유발액 4조1천567억원, 6만7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옛 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전당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대규모 복합 시설이다. 오는 2012년 완공목표인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아시아와 세계에 공급하는 열린 문화 누리터로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창조원은 아시아 문화정보원이 수집·연구한 정보를 토대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문화콘텐츠는 아시아예술극장 무대에 올려져 아시아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 어린이지식문화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문화콘텐츠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들 5개원은 아시아 문화를 수집·보존·창작·개발·연구·교육·전시·공연·예술·향유 등을 매개로 유기체처럼 연계돼 복합문화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